

인공언어학연구회 저 2006년 가을 초판 2011년 7월 5일 제2판

인공언어의 술어

인공언어의 정의와 유의어 및 그 범주와 분류에 대하여

●인공언어의 정의

‘언어학대사전 제 6 권’의 ‘자연언어와 인공언어’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언어는 ‘인간의 각 집단 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인공언어는 ‘자연언어가 갖는 애매성(ambiguity)을 제거하고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그 분야에서의 필요와 사용 목적에 맞도록 인공적으로 설계한 언어’라고 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국제보조어나 예술언어뿐만 아니라 수학용으로 만들어진 언어나 프로그래밍 언어도 인공언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에스페란토나 아르카뿐만 아니라 BASIC 이나 C 언어도 인공언어로 꼽힌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인공언어는 자연언어가 갖는 애매성을 제거한 것이라 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자연주의 인공언어를 인공언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 특별히 필요성이나 목적의식이 없는 인공언어도 제외되고 만다. 자연언어를 ‘인간의 각 집단 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정의하는 데 이견은 없으나, 인공언어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 내지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언어’라고 정의하는 편이 더 망라적일 것이다. 이 정의대로라면 자연주의 인공언어나 특별히 필요성이나 목적의식이 없는 인공언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인공언어의 유의어

인공언어의 유의어는 복수 존재한다. 아래에 예를 든다.

- 1:인공어
- 2:계획언어
- 3:가공언어
- 4:창작언어

1 은 ‘언어학대사전’ 등이 채택하고 있다. 약간 오래된 이미지가 있으며 2011 년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애당초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어라는 술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언어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그와 쌍을 이루는 단어는 인공어가 아니라 인공언어가 적절할 것이다.

2 는 인공언어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단 ‘언어안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암시를 느껴 이 술어를 꺼리는 사람도 있다.

3 과 4 는 예술언어로 분류되는 언어의 제작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단순히 인공언어라는 술어를 모르고 인공언어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이 3 이나 4 를 잠정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인공언어에 관한 홈페이지의 접속 해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이다.

●영어에 있어서의 인공언어의 유의어

1:constructed language

2:conlang

3:artificial language

4:planned language

가장 일반적인 영역은 1 과 그 약어인 2 이다. 참고로 인공언어의 제작자는 conlanger 라고 불린다.

3 은 직역하면 가장 인공언어에 가까우나 서구권에서는 1 이나 2 가 더 일반적이다. 4 는 계획언어에 해당한다.

●자연언어

인공언어와 달리 자연언어는 유의어가 풍부하지 않다. 자연언어로 거의 통일되어 있다. 영역은 natural language(natlang)이다.

●인공언어의 범주

인공언어를 ‘특정 개인 내지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언어’ 로 정의했을 경우, 그 조건에 적합하는 것은 모두 범주에 든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전형적으로는 인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음성을 수반한 것이지만, 수화처럼 음성이 따르지 않는 것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인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지 않는 것도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정의된다.

인공언어와 자연언어는 양극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중간적 존재가 있다. 그것은 피진이나 크레올이다.

피진이란 예컨대 상업항의 영어 화자와 중국어 화자 사이 등에서 발생한다. 중국어 화자가 의사소통을 피하기 위해 영어를 간략화하여 상업용으로서 실용한다. 이것이 피진 잉글리쉬이다. 피진 잉글리쉬는 영어를 간략화한 것이므로 자연언어이다. 그러나 원래 영어에 비하면 인공언어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피진 잉글리쉬는 보통 문법이 복잡한 구조를 갖지 않도록 변경된다. 이러한 일은 영어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상당히 인위적으로 언어가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피진은 인공언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인공언어를 만드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언어를 간략화한 것은 아니다. 피진 잉글리쉬는 상업상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인공언어는 아니다. 따라서 피진은 인공언어와 자연언어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그 토지의 어린이들이 피진을 모국어로서 습득하면 피진은 크레올이라 불리게 된다. 본질적으로 피진과 동일하므로 크레올도 인공언어와 자연언어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처럼 인공언어와 자연언어 사이에는 피진이나 크레올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연언어보다는 인공적이지만 인공언어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암호에 대해서는 인공언어에 포함하는 입장과 포함하지 않는 입장이 있으나,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회는 암호를 인공언어에 포함시킨다. 가령 일본어의 문자를 특정한 치환 규칙에 따라 변환하기만 한 것일지언정 그 치환규칙 자체가 의도적이고 인공적이다.

●인공언어의 분류

a priori language, a priori conlang : 아프리오리 언어, 선협어. 기존의 언어로부터 어휘나 문법이나 음운론 등의 온갖 언어적 요소를 유용하지 않는 언어를 가리킨다. 아포스테리오리에 비해 제작하는 데 노력이 든다. 아르카 등.

a posteriori language, a posteriori conlang : 아포스테리오리 언어, 후협어. 기존의 언어로부터 어휘

나 문법이나 음운론과 같은 언어적 요소를 일부 내지 전부 유용하는 언어를 가리킨다. 에스페란토 등.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auxiliary language (auxlang) : 국제보조어. 에스페란토 등.

artistic language (artlang) : 예술언어. 아르카 등. 아래의 내역이 있다.

--personal language, hermetic language : 개인언어. 주로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비밀의 암호 등으로 사용되는 언어. 빙겐의 힐데가르트에 의한 Lingua Ignota(미지의 언어) 등.

--fictional language : 가공언어. 광의로는 인공언어의 유의어이며 협의로는 예술언어의 내역이다. 톨킨의 미들어스의 언어 등.

--alternative language(altlang) : 대체언어. 만약 역사가 달라졌다면 언어가 어떻게 변화했을지를 고찰한 것. 본질적으로 아포스테리오리 언어이다.

--jokelang : 농담언어. 그 이름대로 여흥으로서 만들어지는 언어. 종종 언어학적으로 보아 부자연스러운 성질을 갖는다.

engineered language (engelang) : 공학언어. 실험적으로 만들어지는 언어. 아래의 내역이 있다.

--philosophical language : 철학적 언어. 프랜시스 로드윅의 ‘공통의 문자’ 등.

--taxonomic language : 분류학적 언어. 철학적 언어와 거의 동의. 개념을 도서분류법과 같이 분기시켜 나가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존 윌킨스 ‘진정한 문자와 철학적 언어를 향한 시론’ 등.

--experimental language : 실험적 언어. 어떤 구조를 가진 언어가 기능하는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만들어지는 언어를 가리킨다.

--ideal language : 이상언어. 보편언어와 함께 주로 16-18 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인공언어 논쟁 중에서 사용되는 술어.

--logical language(loglang) : 논리적 언어. 공학언어가 갖는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술어. 인공언어사적으로는 아래의 programming language 의 단서가 되었다.

--programming language :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를 다룰 때 사용되는 언어. BASIC, C, FORTRAN 등.

naturalistic language, naturalistic constructed language, naturalistic conlang : 자연주의 인공언어. 자연언어와의 혼동에 주의. 자연언어로 착각할 정도의 인공언어를 가리킨다. 종종 제작자에게 언어학과 어학 지식이 요구되며 제작에 노력이 든다.

--naturalistic artlang : 자연주의 예술언어. 예술언어 중 자연언어를 닮도록 한 것. 아르카 등.

●두린체코에 의한 분류

‘언어학대사전’의 ‘인공어’에 따르면 두린체코는 인공언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선험어——철학적 언어

후험어——도식과 : 에스페란토 등

자연과 : 인테르링구아 등

동 사전에 따르면 선험어, 즉 철학적 언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인류 모두에게 공통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언어를 구축한다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으로부터 탄생한 언어안’이다. 선험어는 16-18 세기를 중심으로 베이컨,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등에 의해 고찰되어 왔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선험어와 철학적 언어는 동의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에 의한 분류이다.

그에 대해 후험어는 선험어보다 약간 늦게 발달하여 19 세기에 자멘호프에 의한 에스페란토의 대두로 일세를 풍미했다. 도식과란 자연언어가 갖는 불규칙성이나 예외를 배제한 것이다. 그에 대해 자연과란 자연언어가 갖는 불규칙성이나 예외를

다소 인정한 것이다.

두린체코의 분류는 모든 인공언어를 완전히 분류해 낼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선협어와 후협어로 인공언어를 대별한 점은 유익하다. 인공언어를 선협어와 후협어로 나눈 다음 자연언어와 대비시키면 인공언어와 자연언어는 디지털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 사이에 이물질의 존재를 허용하는 아날로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후협어는 자연언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이며, 도식파나 자연파나 이는 공통된다. 도식파는 언어가 갖는 불규칙성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지만 자연파는 그것들을 인정한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가장

자연언어로부터 먼 것은 선협어이며 가장 자연언어에 가까운 것은 자연파이다.

같은 인공언어 중에서도 후협어가 선협어보다 자연언어에 가깝다. 또 같은 후협어 중에서도 자연파가 도식파보다 인공언어에 가깝다. 그러므로 인공언어와 자연언어 사이에는 보다 인공언어다운 것과 보다 자연언어다운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단 선협어 중에서도 자연주의 인공언어일 경우에는 자연언어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인공세계

인공세계는 *constructed world(conworld)*라고 불리며, ‘특정 개인 내지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세계’로 정의할 수 있다.

내역으로는 인공문화(*constructed culture, conculture*), 인공풍토(*constructed climate, conclimate*)가 있다.

인공세계에도 아프리오리와 아포스테리오리가 있다. 예컨대 인공언어 아르카가 사용되는 인공세계 칼디아는 전자의 좋은 예이다.

●인공언어는 반드시 세계를 배경으로 갖는다

언어는 문화와 풍토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일본어에서 벼와 쌀은 단어 수준에서 구별되지만 영어로는 둘 다 *rice* 이다. 이는 일본인이 쌀을 주식으로 삼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일본의 풍토에 있다.

이처럼 언어는 문화와 풍토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공언어를 만들 때는 배경이 되는 세계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세계를 유용했을 경우 그 인공언어는 아포스테리ורי 인공세계를 갖는다.

제로에서부터 세계를 구축했을 경우 그 인공언어는 아프리오리 인공세계를 갖는다.

참고로 기존의 세계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공세계라고는 하지 않는다.

현실세계이다. 예컨대 프랑스를 무대로 한 인공언어를 만들었을 경우 그 인공언어는 인공세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언어는 인공세계와 현실세계 중 한쪽을 배경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제작하기 어려운 인공언어

이상의 분류로부터 가장 노력을 필요로 하고 제작자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프리오리 인공세계를 가진 아프리오리 자연주의 인공언어이다.

이 유형은 언어와 세계를 제로에서부터 만들어야 하면서도 기존의 언어나 세계로부터 요소를 유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유형의 좋은 예는 인공언어 아르카와 인공세계 칼디아이다.

아프리오리 인공세계를 가진 아프리오리 자연주의 인공언어는 그 제작 난이도로 인해 그 동안 인류가 이룩하지 못했으며, 인공언어 아르카가 사상 최초이다.

엄밀히 말하면 아프리오리 인공세계를 가진 아프리오리 자연주의 인공언어를 단 1 단어라도 만들면 같은 유형을 만든 셈이 되기는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규모, 즉 완성도의 깊이이다.

아르카의 경우 2011 년 현재 단어장 형식이 아닌 사전이 있으며 어휘는 15000 단어를 넘는다. 교재도 풍부하며 문법도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다. 음운론은 물론 음성학도 규정되어 있으며 발성법이나 숨의 사용법에 대해서까지 언급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의 지명도도 나무랄 데 없다. 또 제작 개시는 1991 년이며 적지 않은 작업 이력이 있다.